

① 개요

영등당 본풀이는 한림읍 한림리 영등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황영등은 외눈백이 섬에 잡혀온 어부들을 구해주고 영등굿으로 제향을 받는다.

② 내용

옛날 황영등대왕이 무위이화로 솟아났다. 용왕황제국에 들어가 동경국애기씨, 서경국부인, 선녀 등 셋과 함께 놀이를 하였다. 이때 한수리 고깃배가 풍파를 당하여 외눈배기 땅으로 휩쓸려 갔다. 영등대왕이 어부들을 왕석에 숨겨 두었다가 돌려보내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 기도를 하면서 가라고 시켰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고향이 가까워지자 안심을 하고 기도를 중단하였다. 홀연광풍이 불어 다시 외눈배기 섬으로 들어갔다. 영등대왕이 다시 살려주면서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영등달 초하루에는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부들은 영등대왕 말을 명심하여 무사히 고향에 도착하였다.

외눈백이들은 영등대왕을 도막내어 바다에 버렸다. 머리는 소섬에, 발은 한수리에, 몸통은 성산리로 올랐다. 백성들은 영등대왕의 은혜를 생각해서 영등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③ 특징

한림읍 옹포리에 거주하던 김승은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영등굿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외눈백이 괴물에 대항하여 영등대왕이 어부들을 구해주고 영등철마다 영등굿으로 제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도 영등굿을 하면서 배를 타고 나가 베방선이나 씨드림을 할 때 잠수들이 두손 모아 ‘관음보살’을 외는 사례가 있다.

④ 핵심어

황영등, 무위이화, 용왕황제국, 동경국애기씨, 서경국부인, 선녀, 한수리, 영등대왕, 가남보살, 영등당, 외눈백이, 소섬, 성산리, 영등제, 영등굿

⑤ 원전 서지사항

영등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⑥ 관련 자료